

이라고 했다. 그러나 EPRI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McIlree씨는 벨기에 회사들이 검사과정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다른 방법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브라질

WH社, Angra-1호기 SG改造完了

WH사는 Furnas Centrais Electrica사의 Angra-1호기 증기발생기 개조공사를 마쳤다고 WH사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法廷밖에서 WH사와 협상중이던 Angra-1호기 발전기 문제도 해결이 났다고 브라질 소식통들이 전했다.

Shot-peening, U-벤드 열처리, flow slot검사를 포함한 증기발생기 개조공사가 최근 완료되었다고 WH사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Siemens do Brazil사와 Siemens그룹의 KWU사에서 시행중인 발전기 보수공사는 9월중에 끝날 예정이며 플랜트의 재가동은 10월중에 이루어질 것 같다고 Furnas사 관계자들이 말했다.

Furnas사 측근 소식통들은 동사에서 발전기 문제로 WH사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밝힌바 있으나 최근에 법정밖의 협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Furnas사는 또 발전기에 대한 기술검토와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미국 회사를 고용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작년 6월 24일에 일어난 발전기 코일 화재사고로 이 플랜트는 정지되었다. Furnas사는 이 사고는 일부 터빈 브레이드의 제작상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WH사에 대해 4백만불로 추정되는 보수비와 플랜트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수입의 결손분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었다. Furnas사에서는 전력판매 손실을 매달 3백만 내지 4백만불로 추정하고 있

다.

Angra-1호기는 1982년 4월부터 1985년 1월 사이의 건설 및 오랜 시운전기간중 많은 문제에 봉착했었다. 이 WH사의 PWR은 상업운전을 발표한 후에도 23번이나 계통에서 떨어져 나갔었다.

필리핀

美NUS社에 의한 PNPP-1號機 技術監査結果 背定的

4월 30일에서 5월 19일까지 미국 NUS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된 필리핀 원전 1호기(PNPP-1)에 대한 기술감사의 1차보고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이 23억불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NUS사는 이 플랜트의 설계, 사양, 규제조항 및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대통령직속 PNPP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1차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이 플랜트의 解體處分을 正當化시킬 만한 요인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 발견사항의 내용과 건수로 보아 이번 감사는 양호한 것이었다.

- 플랜트의 설비 보관상태가 좋았다.

-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한 계획표와 비용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 계약자(WH사)가 이 플랜트 소유회사를 지배하려는 태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 플랜트 가동전의 사전준비 계획은 통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다.

1차보고서에는 이번 감사방법이 플랜트에 어떤 큰 결함이 있으면 이를 모두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것이었다고 기술돼 있다.

NUS사 부사장 Keppler씨를 팀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이 감사팀은 이 플랜트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중앙 제어실외에서 할수 있는 停止기능이 미국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므로 이를 개조해야 한다.

- 안전 설비상부에 非안전성관계 파이프로 설치함으로써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 팀의 품질보증(QA) 조사원은 하도급 계약자의 감사보고서와 품질보증 기록과 같은 서류를 볼 수 없어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했으며 하도급계약자의 작업절차는 매우 빈약했고 건설중에 QA프로그램이 보류되었었다.

Ordenez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위원들로 부터는 이번 감사에 대한 논평을 구할 수 없었으나 한 산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플랜트의 가동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을 돕기 위해 이 플랜트의 안전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신뢰성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에 PNPP-1 프로젝트를 취급했던 정부/의회 합동위원회는 당시 입찰가격이 10억불이 넘었던 이 플랜트의 석탄화력으로의 전환 비용이 엄청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이 플랜트를 유니트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Bechtel사에 의한 오스트리아의 Zwentendorf 플랜트 매각과 TVA사에 의한 Yellow Creek 플랜트의 매각등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한편 총 23명의 필립핀 상원의원중 19명이 이 원자력플랜트에 따른 부채상환을 더 이상하는 것을 중지, 연기 그리고 해약할 것을 요청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안에 서명했다.

이것은 부채상환에 대한 입법부의 최초의 확고한 움직임이다. 이 플랜트는 보관상태로 있지만 정부는 약 12억불의 부채와 이에 따른 하루 약 35만 5천불의 이자(1987년 12월 31일 현재)를 부담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미국수출입은행이다.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하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상하원 공동결의안도 아키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결의안은 이를 발의한 Saguisag 상원의원의 주장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PNPP플랜트의 건설은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구비요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고 제멋대로 이루어져 결함 많고 운전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원자력플랜트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Saguisag의원은 또 PNPP플랜트의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의 위치가 몇개 화산에 가까운 곳이 되었다고 했다.

이집트

EL DABAA 原電 入札延期를 通告

전력 에너지성 장관 Abaza씨는 12억불 상당의 el Dabaa 원자력플랜트(1,000MW)의 입찰서를 변경하도록 3개 회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3개 회사는 WH, KWU 및 Framatome사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Framatome사는 지난번 이집트로 부터 입찰연기 요청이 있었을 때 입찰서류를 갱신하지 않았었다. 이집트는 1982년에 처음 입찰에 붙여 그 후 경합자들에게 입찰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는데 자금 문제로 입찰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Abaza 장관은 오는 9월에 이집트정부에 제출할 안전